

해외 명품브랜드 “초특가에 잡자”

광주 신세계, 트레이셔널 시즌오프 ... 최대 30% SPA 브랜드 밀려 부진적이다 최근 4.5% 매출 신장

광주신세계는 최근 ‘트레이셔널 브랜드 시즌오프’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트레이셔널 장르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시작된 전통적인 패션 스타일을 이어나가고, 고급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폴로’, ‘빈폴’을 비롯 ‘라코스테’, ‘헤지스’, ‘타미힐피거’ 등이 트레이셔널 장르의 대표 브랜드로 꼽힌다.

오랜 기간 강세를 보였던 트레이셔널 장르는 몇 년 전부터 브랜드간 경쟁이 심화되고, SPA 브랜드가 인기를 끌면서 상승세가 둔화됐다. 가성비 소비 트렌드가 정착되고 해외직구가 늘어난 것도 매출 부진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최근 부진을 깨고 부활의 날개를 폈다. 올해(1월1일~6월17일) 트레이셔널 장르 매출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동기기간에 비해 4.5%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능성을 강화하고 트렌드에 맞는 전략상품을 선보이고,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맞춰 제품 라인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PK셔츠나 옥스포드 셔츠의 소재와 통기성을 개선하고, 가성비와 디자인이 우수한 스니커즈와 3~40대 고객을 타겟으로 한 비즈니스 캐주얼 상품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부모님과 아이가 같은 디자인의 옷을 함께 입고 여행을 가는 미니미 패션, 패밀리 룩이 대세가 되면서 성인·아동라인이 함께 마련된 트레이셔널 장르가 재도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기를 타고 광주신세계는 지난 15일부터 시즌 종료 시까지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트레이셔널 브랜드 시즌 오프’를 진행한다. 이번 시즌오프제에서는 올해 봄·여름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트레이셔널 브랜드 시즌오프’가 열리고 있는 광주신세계의 한 브랜드 매장을 찾은 고객이 행사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는 1층 시즌 이벤트 홀에서 ‘폴로’, ‘빈폴’, ‘라코스테’, ‘타미힐피거’, ‘빈폴골프’ 등 총 12개 브랜드를 한자리에 갖추고 ‘트레이셔널 특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인철 광주신세계 영업기획팀장은 “한동안 침체에 빠져있었던 트레이셔널

브랜드가 변화의 노력을 통해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있다”며 “시즌오프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패밀리룩을 준비하고 즐거운 가족여행을 떠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에너지밸리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광주전남 증기청, 참여기업에 무료부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오는 7월 12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에너지밸리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2일까지 전남일자리종합센터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신청서는 에너지밸리플라자(www.energyvalley.kr)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gwangju)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밸리 일자리 박람회’는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 에너지분야에 관심있는 대학생, 특성화고생, 일반 구직자 등 다양한 지역인재 400여명이 일자리를 발굴한다는 방침

이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무료부스 제공과 함께 현장 채용 면접이 가능하도록 필요물품도 지원되며, 구직자들은 취업컨설팅 서비스, 직업심리검사, 무료이력서 사정관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진형 광주·전남청장은 “이번 박람회의 경우 혁신도시와 광주시와의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우수인재가 몰릴 것이니 만큼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부 광주·전남청은 지난해 개최한 유관기관 합동 채용박람회에서는 산업기능요원 및 특성화고생 등 620여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300여명을 취업시킨 바 있다.

/이나라 기자

기술혁신형 창업 청년에 최대 1억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 등 4차 혁명 산업 관련 기업을 창업하려는 1,500명의 청년에게 최대 1억원씩을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추가경정예산 1,013억원을 배정받아 이런 내용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지난 15일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두 8개 부처와 산하기관이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와 관련한 산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는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기술보증기금이 대상을 선정한다.

이외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는 자체적으로 모집방법을 마련해 대상을 정하

기로 했다.

신청 가능한 4차 산업혁명 분야를 보면 사물인터넷(IoT) 가전, 로봇, 3D 프린팅, 빅데이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스마트, 스마트·친환경 선박 등이다.

예컨대 빅데이터나 차세대통신 관련 분야 기업 창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지능형로봇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예비창업자와 전문가(멘토)를 1대1로 연계하고서 최대 1억원의 창업상품권(바우처)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대 잇는 ‘백년가게’ 육성

중기부, 건물 철거·재건축 이전비용 보상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를 이어가며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명소를 육성하기 위한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성장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마

련됐다. 100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이 90여개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2만 2,000여개다.

이에 정부는 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일부 소기업) 중 전문성, 제품·서비스, 마케팅 차별성 등 일정 수준의 혁신성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백년가게’로 육성한다.

선정될 시 백년가게 인증현판을 제공해 신뢰도 및 인지도를 제고하고 식신 등 유명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플랫폼과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협업해 홍보한다.

또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고정)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한다.

프랜차이즈화, 협동조합화 등 체인화와 협업을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경쟁력을 높인다.

중기부는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영노하우를 공유하고 사례집도 발간한다.

또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한편 청년상인 희망자, 청년몰 입점 예정자를 유사 아이템의 백년가게와 연결해 경영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인력의 안정적인 유입을 돕는다.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19일부터 신청서를 작성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전국(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이메일(100year@semas.or.kr)로 신청하면 된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18일부터 성남유통센터에서 ‘2018 전남 10대 브랜드쌀’ 선정 기념 판매행사를 열고, 고객유치에 나섰다.

‘전남브랜드 쌀’ 수도권 소비자 공략

전남농협 ‘전남 10대 브랜드쌀’ 성남서 첫 판매

‘2018 전남 10대 브랜드쌀’이 수도권 소비자와 첫 만남을 갖는다.

농협전남지역본부와 전라남도도는 18일부터 성남유통센터에서 “2018 전남 10대 브랜드쌀” 선정 기념 판매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남 10대 브랜드 쌀 구매(1포/10kg)고객에게 전남지역 대표 농산물인 양파(3kg)를 추가로 증정하며 총 목표 판매물량은 2000포/10kg이다.

전남 10대 브랜드쌀은 전라남도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기관의 밥맛·품질·안전성·현장 평가 등을 거쳐 5월에 선정했으며, 이날 1일에는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한 연찬회 및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다.

2018년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은 ▲해남군 ‘한눈에 반한쌀’ ▲담양군 ‘대숲맑은쌀’ ▲함평군 ‘나비쌀’ ▲무안군 ‘향토랑쌀’ ▲고흥군 ‘수호천사 건강미’ ▲강진군 ‘프리미엄 호평’ ▲영광군 ‘세계절이 사는집’

▲보성군 ‘녹차미인쌀’ ▲영암군 ‘달마지쌀 골드’ ▲신안군 ‘갯벌에 여문쌀’이다.

박태선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고품질 전남 10대 브랜드쌀은 소비자와 전문가들로부터 맛과 품질을 검증받은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쌀이다”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올 한해도 전라남도와 함께 10대 브랜드쌀이 수도권 소비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에 기자

2018년 경제통계통합조사 실시

호남지방통계청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24일까지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의 약 4만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제통계통합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제통계통합조사는 중부조사 최소화로 사업체 응답부담을 경감코자 통계청의 6중 경제분야 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조사 분야는 기업활동, 서비스업, 운수업, 광업·제조업, 광업·제조업 동향, 서

비사업 동향 등 6종이다.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사업실적, 품목별 출하·수출액 등 업종별 특성항목을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조사별로 오는 11월~2019년 1월에 공표 예정이며, 산업별 구조변화,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대학의 연구등에 활용된다. /이나라 기자

DK 다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공기청정기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작지만 강하게 스테레오 공기를 케어하다 mini air DK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상담) 1544-1154